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 모두가 선(行住坐臥語默動靜)이라는 말은 <중도가>, <석씨요람> 등 곳곳의 선적(禪籍)에서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좌선만이 선'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스님은 "장사하는 재가자가 시장에서 내 물건들 사가라고 외치는 곳에 선이 없다면 불교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고, 불교의 생활화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스님의 가슴에는 어떤 구절이 담겨 있을까? 나그네의 물음에 돌아온 현각 스님의 답변은 놀랍게도 <초발심자경문>의 한 구절이었다.

<초발심자경문>은 현각 스님이 고된 행자 생활 동안 가슴에 품고 읽었던 책이다. 스님은 "삼일 뒤는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의 티끌(三日修心千載寶 百年食物一朝塵)"이라는 구절을 뽑아 수행의 근간이요, 평생의 지표로 삼아 왔다.

지적 호기심이 상당한 현각 스님이 이 구절을 택한 데에는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제자인 나그네가 연이어 물었다. 왜 이 구절인지.

구절 중의 단 한자, '재(載)' 때문이었다. 스님은 "지금 와서 보면 쉬운 말이지만 당시로는 '재(載)'가 명쾌하게 해석이 안됐다. 경전을 구구단 외듯 하면서도 대부분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지만 '왜'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載)"는 당나라 때의 용어이다. 주나라 때는 연(年)으로, 한나라 때는 세(歲)로, 은나라 때는 사(祀)로 사용했다"는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늘 천(天)"으로 시작하는 천자문의 끝은 '야(也)'입니다. '이게 야'라고 쓰여 있는 데 사실 이게 '입찰'의 오자입니다.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 발음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적다보니 오자가 생긴 것이예요."

스님은 "학문도, 수행도 '왜'라는 의문이 없으면 출발이 어렵다. 의문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광야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지루함에 빠져 중간에 좌절하고 만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불교(佛)에서는 '왜'라는 의문만큼이나 믿음(信)의 초석을 쌓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信)은 범어로 'sradha(sra+dha)'이다. 'sra'는 소리(voice, sound)이며, 'dha'는 도달하다(reach)의 뜻을 갖고 있다. 믿음은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신앙의 대상이나 불상을 모시는 형태로 변화했다.

스님은 "소리에 도달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리에 이른다'는 말"이라며 "막연하게 산천초목 두두물물에 내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리 즉 법에 당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라 설명했다.



이러 현각 스님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며 '돈·출세·건강·합격 등을 달라'며 거래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이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선 것"이라며 "올바른 수행생활을 하려면 믿음에 대한 나침반부터 바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라는 직업 탓일까? 스님의 법문이 붓물처럼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현각 스님은 "중생세계인 사바세계(sahaloka)는 'saha(싸우다) + 'loka(세상)', 싸우는 세상이고, 부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적멸의 세계"라며 <금강경> 제18 일체동관분에서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여래실지(爾所國土中 所有衆生 若干種心 如來悉知)'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여래)은 세상 모든 중생의 가지 가지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부처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스님은 "처음 생긴 자[자]는 자로 재서 만들 수 없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교화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처님께 올리는 최대의 공양은 그 가르침을 수지독송하고, 마음 속에 침보로 장엄한 왕국을 세우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널리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찻잔이 다시 오가고, 나그네의 시선은 창밖 설경을 향했다. 현각 스님은 "매일 산에 올랐는데 눈이 많이 와서 한동안 못다니고 있다"며 "인왕산에 오르며 자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여름 폭풍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키워야 할 의무를 다한 파란 잎이 때가되면 노랗고 빨갛게 물들다 저절로 낙엽으로 진다"며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낙엽의 미덕이 있기에 겨울이면 나무는 설화를 피울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갈대의 속은 비었다. '비운다'면 떨어져 버린 상실의 의미로 받아들여기 쉬우나 실은 상생의 길이다. 속이 꽉 찬 나무는 겨울이면 쓰러져 설해목이 되기도 하지만, 텅 빈 갈대는 거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며 상생의 지혜를 일러준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의 탐구심은 산행 중에도 끊이지 않았다. 산행으로 숨이 가뭇던 스님은 '재앙(disaster)'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스님은 "벌(aster)이 자기 궤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간다면(dis) 우주에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중생들은 보이고 잡히고 들리는 것 모두를 갖고 싶어 마음을 활짝거리며 살고 있지만, 자신의 본분(本分)을 지키는 삶이 바른 삶이다. 활짝이는 마음을 풀이키면 모두가 찬사의 대상이 되고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입제록>에는 '일기일회(一期一會, 일생의 단 한번 뿐인 인연)'라는 말이 있다. 스님은 "지금 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뜻의 '일기일회'를 영어로 하면 'is now or never'"라며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바로 지금' 주어진 매 순간을 감사해 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났다. 아까 스님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부처의 세계'는 정말 중생은 볼 수 없는 것일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나그네는 궁금했다.

현각 스님은 "서구에서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no place, no where)은 뜻이다. 하지만 'no where'에서 w만 앞에 붙여 놓고 보면 'now here(지금 여기)'가 된다"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적멸의 자리가 '지금 여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 여기(now here)"가 설해진 도량, 도심 속 진주처럼 아름다운 절 마니사가 바로 유토피아가 아닐까?

글=조동성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8.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혜안 스님은 대한불교보문종 제7·8·9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다.

만나면 항상 초대, 2대 종정을 지내신 금탄 스님과 3·4대를 지내신 명주 스님, 5·6대를 지내신 일조 스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금탄 스님의 당호는 설월당이고, 성은 이씨인데 서울 왕십리에서 태어나 7세에 어머니의 권유로 보문사에 출가하였다. 그의 어머니도 철원 보개산 석대암으로 출가 하셨거든. 18세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벽하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고, 이듬해 동학사에서 4집과를 수료한 뒤 1912년 보문사 주지가 되어 자그마치 돌아갈 때 까지 33년간 계시다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비구니종단을 만드시고 80년 8월 96세로 입적하셨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장수



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보문종 총무원장 종정 역임하며 종단 발전 기틀 다져

하셨지만 하신 일이 많았다.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자파티를 종조(宗祖)로하고 구원실상(久遠實相)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本尊)으로 하며, 화신(化身) 관세음보살의 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보문종의 종지(宗旨)였다.

보문사는 고려 예종 10년 담진 국사가 창건한 이후 조선 숙종 때 묘점 스님, 영조 때 보안 스님, 고종 때 금촌 스님 등이 대웅전을 중건, 중수하고 좌우 승당을 건축해 서울 시내 여승방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교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명주 스님은 살아 있는 보살이었고, 어디서 초상이 나면 보따리 보따리 싸들고 가서 상제들의 옷과 초상 일체를 주관하고 잘 곳이 없으면 재봉을 위해서도 잤거든. 전주 사람들은 산 부처로 섬겨왔지. 문만 생기면 경전을 편찬하여 인쇄하고, 그 책이 나오면 유명한 스님들을 모셔다

리고 이들 큰스님들이 공중에 드나들며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4대문 안에 비구스님들은 열선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장안불교가 살아 있었어."

생각하면 부처님 당시부터 비구니스님들은 불교를 안팎으로 보호하여 절 안의 스님들 가운데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밖으로 행정, 사법 등 모든 기관을 통해 외화자가 되도록 화했었던 것이다.

1981년 보문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혜안 스님은 10년 동안 부처방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 보문종 7대 종정으로 취임한 이후 8~10대에 이르기까지 종정을 역임하며 보문종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혜안 스님은 무려 반세기도 넘는 55년 동안 보문사에 주석하면서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하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대승경전인 <원각경>

에 서서 오는 손님 기쁘게 맞아 주시는 것으로 일과를 삼았다. 스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문종을 지키고 있지만 20세기가 여성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19세기부터 알고 여성불교 종단을 만든 것이다. "신심껏 열심히 공부하자"는 신조로 늘 수행 정진을 당부하던 혜안 스님은 2005년 10월 1일 보문사에서 세수 94세, 법랍 81세로 입적했다.

어떤 분들은 비구니는 비구에 소속된 대중인데 독립하여 종단을 만들었으니 불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행을 보면 오히려 비구스님들도 배워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늘 깨우쳐 왔다.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한국 여성불교의 핵심을 키워 주신 분들, 이분들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멀리서도 그의 후학을 보호하며 반드시 말세중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키워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한방(韓方) 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증-6224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가물의 자연 발효 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북대추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열이 배인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에 의해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 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통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예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발효로 띄우려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복식품

· 서울특별시 : 02)742-0172 · 대구광역시 : 053)425-3063
· 충청남도 : 051)261-2231 · 울산광역시 : 052)211-2161
· 부산광역시 : 051)514-3566 · 대전광역시 : 042)862-5339